『中國學』第84輯 (2023.09.30.)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3.84.84.9
pp.175-201. ISSN : 1229-9618

청말 해외견문록에 기록된 화교*

- 志剛의 『初使泰西記』와 李圭의 『環遊地球新錄』를 중심으로

김경혜**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19세기 말 청의 화교 인식
3. 志剛의 『初使泰西記』에 기록된 화교
   1) 志剛의 출사배경
   2) 『初使泰西記』에 기록된 화교
4. 李圭의 『環遊地球新錄』에 기록된 화교
   1) 李圭의 출사배경
   2) 『環遊地球新錄』에 기록된 화교
5. 나오는 말

【초록】

본 연구는 지강과 이규의 견문록에 나타난 19세기 말 일본과 미국의 화교를 분석한 것이다. 1860년 중국인의 해외 이주가 합법화하면서 해외로 진출하는 중국인들이 증가하였다. 이들이 현지에서 겪는 차별과 학대의 상황이 출사대신의 견문록을 통해 청 정부에 전달되면서 해외 영사 파견과 공사관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강은 1868년 벌링게임 사절단으로 출국하여 구미를 견문한 내용을 초사태서기라는 책으로, 이규는 1878년 필라델피아 박람회의 중국 대표로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유지구신록을 펴냈다. 두 인물이 견문록에서 일본과 미국의 화교의 어려운 상황을 널리 알린 것은 청 정부의 화교 보호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키워드】 지강, 이규, 초사태서기, 환유지구신록, 화교, 해외견문록

* 본 논문은 2022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김경혜.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교양과 부교수 (jinqinghui@hanmail.net)

1. 들어가는 말

근대 중국인들이 남긴 해외 견문록, 그리고 화교라는 주제는 신선한 연구 제목이 아니다. 역사학계는 물론 문학계에서도 근대 출사 대신의 공문과 일기 및 개인의 사적 견문록을 포함하여 해외 견문록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미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1] 화교라는 주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역사, 사회, 문화, 민족을 다루는 각 영역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더 이상의 연구가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할 정도이다.[2] 이처럼 양적으로 풍부한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이 주제를 둘러싼 수많은 사실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 주제를 선택한 까닭은 여전히 다루어 볼 만한 어떤 공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志刚(1818-?)과 李圭(1842-1903)의 견문록에 나타난 화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두 인물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첫째, 시기적으로는 이들이 출국한 1860-70년대에는 아직 청의 해외 공사관 설립이 본격화되기 전이었다는 점, 둘째, 지역적으로는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해당 지역의 화교 상황을 직접 목도하였다는 점, 셋째, 이들이 각각 사절단과 박람회 참가단의 청 대표 자격이었다는 점, 즉 이들이 공적인 업무 수행차 외국에 체류하였다는 점 등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연구자 熊娉婷은 志刚이 容闳, 王韬, 斌椿 등과 함께 중국인들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을 열어주었으며, 李圭는 그 창문을 활짝 열어 더 많은 중국인들이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준 인물이라고 평가한 바 있었고,[3] 沈燕清은 화교 사회의 기본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인들에게 소개하여 사료로서의 가치가 큰 청대 해외 견문록으로 지강의 『초사태서기』와 이규의 『환유지구신록』을 선정하였다.[4] 국내 연구자 박경석도 근대 중국인들의 해외 세계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고취한 다수의 해외 여행기들 중에 지강의 『초사태서기』와 이규의 『환유지구신록』을 포함시켰다.[5] 이러한 연구 상황을 볼 때 청말 화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

---

1) 근대 중국의 해외 견문록 정리 및 연구 현황에 대하여는 叶璐, 『晚清异域游记传播研究』, 辽宁大学博士學位論文, 2021을 참고할 수 있다.
2) 최근 중국과 국내 화교 연구 현황에 대하여는 김주아, 「국내 학계의 '화교·화인' 관련 연구 성과 - 지식지형도와 시각화를 중심으로」, 『2022년도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콜로퀴움』, 2022을 참고할 수 있다.
3) 熊娉婷, 「試析李圭的環球旅行」, 『湖南省政法管理干部學院學報』, 제18권제2기, 2002, p.175,
4) 沈燕清, 「清代海外游历笔记中的华侨社会」, 『八桂侨刊』, 2005, p.49.
5) 박경석, 「근대 중국인의 해외여행과 내셔널리즘, 그리고 타자인식」, 『東洋史學研究』, 제107집, 2008, p.99.

나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이 두 인물에 대하여 크게 주목하지 않았고, 특히 화교라는 주제와 연관하여 이 두 인물을 본격적으로 살펴본 연구 성과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기적으로는 19세기 말, 지역적으로는 일본과 미국의 범위 내에서 화교라는 주제를 지강과 이규의 견문록을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19세기 말,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서양 중심의 질서로 대체되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중국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 만국 중의 일국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지켜보아야 했던 중국인들에게 해외 체험은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는 좋은 기회였다. 19세기 말까지는 使行이라는 공적인 목적으로 출국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생계를 도모하기 위한 취업, 또는 유학이나 문인의 개인 여행 등 사적인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이들도 증가하였다. 이들이 남긴 해외 견문록에는 서양 문명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뿐만이 아니라 견문한 해당 지역민의 생활 풍습이나 생활 소품과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서양과의 외교, 교섭 문제와 같은 거대한 문제들까지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있다. 출국의 목적이나 견문하는 국가에 따라 견문록 저자의 인식에는 확실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출사 대신들의 견문록에는 주로 외교적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서양 국가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남긴 일기나 견문록은 개인의 기록인 동시에 역사적 자료로서도 큰 가치를 지닌다.

해외로 출국한 근대 중국인들이 예외 없이 주목한 대상은 바로 화교[6]였다.1860년 베이징 조약체결 이후 화공의 수출이 합법화되면서 매년 해외로 나가는 인력이 급증하였다. 19세기 초반부터 노예무역이 금지되어 노동력이 필요했던 서양의 수요와 전쟁 및 지속된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적 압박에 시달린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출구를 찾던 상황이 맞물린 결과였다. 먼저 해외로 이주해 정착한 사람들이 동향이나 친척 등의 이주를 주선하면서 해외로 떠나는 중국인들의 수는 더욱 증가하였다. 이들은 이동 과정에서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가혹한 대우를 받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선상 폭동을 촉발한 경우도 있었다. 1850년대에만 5차례의 폭동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1852년 하문에서 출발하여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던 로버트 보운(Robert Bowne)호에서

6) '해외로 이주한 중국인'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화교, 화인, 화족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화교란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을 가리키며, 화인이란 현지 국적을 취득하였지만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말한다. 거주지의 국적을 지닌 2,3세의 경우에는 주로 화인이라는 표현을 쓴다. 더 포괄적으로 화교, 화인의 후예로서 해당 이주 국가의 소수민족임을 지칭하는 화족이라는 용어도 있다. 이처럼 개념상의 차이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근대 초기 해외 이주와 정착인들, 즉 대부분 국적을 변경하지 않은 이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화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병인, 「近代 中國의 海外移民과 '故國'」, 『東洋史學研究』, 제103집, 2008, p.145. 신명직, 「식민형 '중간시민'에서 동화형 '유사시민'으로 - 화교화인의 변모와 '동아시아 시민'의 형성」, 『石堂論叢』, 70집, 2018, p.387.

선장이 살해되고, 후에 중국인들도 영국과 미국 군함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대표적이었다. 1872년에는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 정박 중이던 페루 선적 화물선 마리아 루즈(Maria Luz)호에서 화공 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해외로 팔려 나간 화공들이 노예처럼 학대받는 현실이 널리 알려졌고, 이는 청 정부가 조약을 통해 화공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도록 하고 해외 영사관을 설치하여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해외로 이주하는 중국인들이 증가할수록 그들을 둘러싼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이들의 권익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는 영사관의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공통의 인식이 점차 확대되었다. 즉 상주사절의 파견은 청말 화교 정책의 핵심 내용이 되었다.

그렇다면 해외 공관이 설립되기 이전 청을 대표하는 관료 자격으로 서양을 견문한 이들의 눈에 화교는 어떻게 비추어졌는가? 해외에서 화교들이 겪고 있는 냉대와 차별 등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였는가? 필자는 화교에 대한 이들의 소개나 인식이 청말 외교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강과 이규가 출국하였던 시기는 청이 이른바 '公法'으로 불리던 서양의 국제법에 토대를 둔 근대적 외교를 수용하던 시기이다. 근대적 외교의 두 축은 조약과 常住使節의 파견이었다. 조약은 국가 간의 합의가 체결·비준의 절차를 거친 후 성문화되어 국제법의 성격을 띠는 '원칙'이었으며, 상주 사절은 이 '원칙'에 따라 자국민 보호 및 정보 수집 등 기본 업무를 처리하고, 외교 현안이 발생할 시에는 본국과 소통하며 상대국과 교섭하는 책임을 맡았다.[7] 청 역시 전통적 중화 질서만을 고수하기 어려우며, 근대적 외교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 질서에 편입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1861년 청 정부는 외교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 기구로서 총리아문을 설립하였고, 주외 공관을 개설하면서 1875년부터 상주 외교관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8]

지강과 이규는 각각 청 정부 해외 사절단 및 박람회 참가단의 대표라는 특별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화교의 상황에 대해 더욱 시선이 끌렸을 것이다. 이들은 일본과 미국에 정착한 화교들이 어떤 이유로 모국을 떠났는지, 해외에서의 생활환경은 어떠한지, 이들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기록을 남겼다. 이 문제를 탐색하기 위해 본 논문의 2장에서는 19세기 말 청 정부의 화교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강력한 해금 정책을 유지해 온 청 정부는 개항 이후 국제

7) 정동연, 『淸의 駐韓公館과 韓淸 近代外交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p.1.

8) 총리아문 설립 이전에 중국에는 '대등한 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근대적 개념의 외교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외국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했던 예부와 이번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외국을 상대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의 근대외교는 총리아문의 설립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해외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점차 바꾸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화교 정책도 변화하였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지강과 이규의 출국 배경, 그들이 작성한 견문록에 나타난 일본 및 미국 화교에 대한 인식 및 화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주장 및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19세기 말 청의 화교 인식

『大淸律禮』에는 "모든 관원과 군인은 사사로이 해외로 나가 상업에 종사하거나 外洋海島에 거주하는 이가 있거든 반역자와 내통한 것으로 간주하여 즉결로 사형에 처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발견하지 못한 지방 관원들의 경우에는 직위 강등을 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9] 이처럼 청은 왕조 성립 초기부터 강력하게 이민을 억제하였고, 해외로 이주한 이들을 '棄民'으로 간주하여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관리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10] 그러나 강력한 금지책에도 불구하고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난한 중국인들이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로 나간다는 사실을 청 정부는 인지하고 있었다. 아편전쟁 이전 1839년 임칙서가 올린 주접에는 해외로 나가는 중국인들을 지칭하는 '豬仔'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그 내용을 보면, "매년 겨울 외국 선박이 귀국할 때 일이 없어 가난한 백성을 서로 추천하여 고용되면 해외로 나간다. …… 한 사람당 洋銀 6-7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매년 식대 이외에 양은 10여원을 준다. 그 나라에 도착하면 산을 깎고 나무를 심는 일, 힘든 일을 시키는데 3년 후에는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다. …… 또 다른 한 두 척의 서양배가 늘 가난한 사람들을 태우고 나가 생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조사해보니 배 삯과 식대를 받지 않고 외국 항구로 데리고 가면 거기서 어떤 이들이 고용한다. 1년 치 임금은 모두 선주가 가져갔다가 1년을 채우면 노동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고 하였다. 이들을 '저자'라 부르는 까닭에 대해서는 "이들이 배에 있는 동안에는 모두 나무로 된 그릇에 밥을 주는데 중국인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밥을 먹도록 부르는 소리가 내지에서 새끼 돼지를 부르는 소리와 비슷하여 그들을 '저자'라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들은 매매된 것이 아니라 고용된 일꾼이라고 적었다.[11] 이보다 앞선 1823년 이미 광동의 汕頭에 豬仔館이 2, 30여 개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던 만큼

9) 陳翰笙 主編,『華工出國史料匯編』, 제1집, 中華書局, 1985, p.1.
10) 陳翰笙 主編,『華工出國史料匯編』, 제1집, 中華書局, 1985, p.11.
11) 「林則徐奏查明外國船只騙帶華民出洋情形折」, 陳翰笙 主編,『華工出國史料匯編』, 中華書局, 제1집, 1985, p.6.

가난한 중국 노동자들의 해외 이주는 분명한 현상이었다.[12]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청이 광주·하문·복주·영파·상해 등 5개 항구를 개항하고 홍콩을 할양하면서 국제 사회를 향한 문을 열게 됨으로써 청 정부의 해금정책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당시 서양에서는 노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저임금 노동력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고, 자국은 물론 식민지 건설에 있어서 광산, 철도의 부설 및 각종 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필요하였으므로 다수의 중국 노동자들을 유입하였다. 이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였는지 아니면 납치나 유인 등 강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출발 지역별 및 도착 국가, 또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달랐지만[13] 1840년대 말부터 외국인과 계약을 맺고 해외로 진출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은 점차 증가하였다.

아편전쟁에서의 승리로 광동 무역 체제가 폐지됨에 따라 영국은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대해 환상을 품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대 중국무역에서 정체 상태에 놓이자 1856년 프랑스와 연합하여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켜 청 정부를 압박하였다. 1857년 영불연합군이 광주를 점령한 후에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해외 이주가 크게 증가하여 "광동의 외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속여 납치, 매매하는 '저자 판매(賣豬仔)'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咸豐 7년 외국인들의 입성 후 더욱 성행한다"는 내용의 상소가 올라올 정도였다.[14] 광동 점령 이후에 외국인들이 도박, 협박, 채무, 사기와 납치 등 각종 불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더 많은 중국인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1860년 1월, 광동순무 勞崇光은 중앙 정부의 승인 없이 外國招工章程을 반포하여 쿨리 무역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대신 자발적인 해외 이주는 허용하였다.[15]

그러나 同治 연간(1862-1874)에도 여전히 불법적인 수단에 의한 중국인 노동자들의 해외 송출은 계속되었다. 마카오에서의 성행했던 저자 판매에 관한 다음의 기록은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페루와 쿠바인이 쿨리를 모집하는데 豬仔頭와 계약을 한다. 저자두는 다시 豬仔跋, 豬仔索 등과 계약 하여 약속된 인원을 채운다. 만일 기간 내에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저자두가 서양 상인은 總豬仔頭에게 각종 비용을 배상받고, 총저자두는 하위직인 저자발에게 책임을 물어 비용을 배상받

12) 陳翰笙 主編, 『華工出國史料匯編』, 제1집, 中華書局, 1985, p.5.
13) 19세기 후반 해외로 송출된 중국인 노동자들의 성격에 대하여는 정영구, 「19세기 후반 중국인 쿨리 해외 이주의 개념과 방식」, 『명청사연구』, 제48집, 2017. 저자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망라하여 저자와 쿨리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동일한 개념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저자, 쿨리, 화공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였다.
14) 陳翰笙 主編, 『華工出國史料匯編』, 제4집, 中華書局, 1985, p.186.
15) 招工章程의 내용과 성격에 관하여는 정영구, 「中國人 海外移住, 陰地에서 陽地로」, 『中國史研究』, 제129집, 2020.

는 방식이다. 따라서 계약한 시점까지 인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迷藥을 쓰거나 사기, 납치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숫자를 채워야 한다.[16]

이처럼 불법적인 해외 송출이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1864년 청 정부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유괴, 매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부 율령에 편입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사람을 유인하여 해외로 내다 파는 내지인은 그 정황을 조사하여 협박이나 유괴 등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각 省의 독무가 상소를 올려 우두머리는 즉시 참수형에 처하고, 그 수하는 판결 후 참수형에 처하도록 한다. 만일 사람들을 속여서 유괴하여 다른 곳에 가두고 사람들을 모아 서양 배에 태우는 범죄자는 적발하여 체포할 것이며 초범자라도 이같이 처리할 것"이라는 법령을 마련하였다.[17] 1866년에는 공친왕 혁흔과 영국, 프랑스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북경장정(续定招工章程条约)을 체결함으로써 해외로 이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장정이 발효되지는 않았으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국하는 이들은 개인이든 부부이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국가에 도착한 후에 부부는 서로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도록 하고, 15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 7일 근무 후 휴식일을 갖도록 하고, 일일 근무 시간도 정해둘 것, 근무 연한은 5년을 넘지 않도록 하며, 기한 만료 후 귀국할 때는 계약서에 기재된 통행료를 지급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볼 때 청 정부는 점차 자국민의 자발적인 해외 이주를 인정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이주에 대해서는 법적제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해외 이주 중국인에 대한 청 정부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1868년 벌링게임 사절단의 파견이 결정되었다. 미국 내 중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백인 노동자들과의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는 중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혐오의 정서로 확대되었다. 이들 간의 크고 작은 갈등과 충돌이 반복되자 미국 국무장관 시워드(William Henry Seward)는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 특히 캘리포니아의 중국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공사가 파견되어 그들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국인 이주민 문제가 미국 정치계의 중요한 이슈임을 인정하였다.[18] 미국 내 중국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사절단 파견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

16) 「總署收到未具名者寄來澳門拐騙華工情形八條」, 陳翰笙 主編, 『華工出國史料匯編』, 中華書局, 1985, p.249.
17) 叶小利, 「晚清华侨政策转变之影响——以华侨认同为角度的解读」, 『北华大学学报』 2014, p.73.
18) 郭惠, 『蒲安臣條约與中美交涉華工事務研究』, 西南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 p.23.

1868년 청 사절단의 대표 벌링게임과 미국 국무장관 시워드간의 교섭을 통해 벌링게임 조약(淸美續增條約)이 체결되었다. 중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3, 4, 5, 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중국의 황제는 미국의 항구에 영사를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미국은 중국의 영사가 공법과 조약에 따라 영국, 러시아 등 영사를 파견한 다른 나라들이 향유하는 것과 똑같은 특권을 가진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4조, 중국에서 미국인이 이교도라는 것을 이유로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미국 내 중국인들 역시 이교도이기 때문에 모욕과 학대를 당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미국과 중국의 황제는 거주 이전할 수 있는 인간 본래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며, 무역 또는 거주를 목적으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자유로운 이민과 이주의 상호편의를 인정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없이 상대방 국가나 외국에 국민을 보내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킨다. 제6조, 중국을 방문 또는 거류하는 미국 시민들, 미국을 방문 또는 거류하는 중국인들은 최혜국의 시민이나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여행과 거류에 대해 동일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시워드는 이 조약을 "현재의 잘못된 악폐를 고치는 규정"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동등한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였다.[19] 이 조약은 화교 보호 문제가 청 정부의 의제로 상정된 산물이자 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관례 공법을 수용해 화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한 결과물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20]

한편, 1860년대 후반부터 화교를 배척하던 전통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들을 관리 및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해외 영사를 파견하고 해외 영사관을 설립할 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하였다. 1866년, 광동순무 蔣益澧은 서양의 영사를 '특설관'이라 칭하면서 이들이 외국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내용에 관한 상소를 올렸다. "무릇 수만 리 밖에 나가 무역하는 서양 상인을 위해 저들 나라에서는 특설관을 두어 이들을 유지·보호함으로써 상하의 정이 통하게 하고 내외의 기운을 하나로 모은다. 중국 내지의 복건과 광동성에는 외국으로 나가 장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싱가포르에는 약 10여만 명, 캘리포니아에는 약 20여만 명, 페낭·갈라바에는 수만 명이 있다. …… 만일 중국이 사신을 해외 각지로 보낸다면 저들의 심중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21]이라고 주장하였다. 1867년 江苏布政使 丁日昌은 화교를 보호하는 전문 기관으로 시박사를 설립하고, 해외 각국으로 상주 사절을 파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청 정부가 충성

19) 김남현, 「초기 중국이민의 교섭과 조약의 체결: Burlingame조약과 1880년 중미조약을 중심으로」,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25, 2011, p.1.

20) 劉華, 「評1868年中美『蒲安臣条约』——以華工出国及華僑保護問題爲視覺」, 『華僑華人歷史研究』, 2003, 第1期, p.49.

21) 權好勝, 「晚清政府保護海外華僑伊始」, 『僑務工作研究』, 2012, http://qwgzyj.gqb.gov.cn/qwhg/166/2043.shtml에서 참고.

스럽고 유능한 관리를 선발하여 서양의 영사처럼 해외로 파견, 상주하면서 모든 해외 무역을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이 상인들의 해악을 바로잡으면서도 상인의 이익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중국을 떠난 이들은 고향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외국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의 기세는 날로 진작될 것이라고 하였다. 1870년대에 들어서서 이홍장은 서양은 중국으로부터 수만 리나 떨어져 있어서 그곳에는 중국인이 많지 않으니 상주 사절을 파견하는 것이 당장 서두를 일이 아니라면서도 일본의 나가사키 등에는 강소, 절강, 복건에서 건너간 중국인들이 매우 많으니 마땅히 영사를 두어 그들을 관리하면서 일본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볼 때, 해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청 정부의 해외 영사관 설립 결정에 중요한 매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 정부 내에서 해외로 이주한 자국민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하고, 영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는 것은 청 왕조 개창 이래 고수해왔던 해금 정책의 전면적인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22]

3. 志剛의 『初使泰西記』에 기록된 화교

1) 志剛의 출사 배경

1867년 9월 총리아문은 각 지방의 장군, 독무, 대신 등에게 비밀리에 연락하여 해외 사절 파견 문제를 논의하였고, 11월 27일에는 共親王 奕訢이 이와 관련하여 奏摺을 올렸다. 사절단 파견 문제에 관하여는 이전부터 해관 총세무사 하트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고, 1866년 3월에는 빈춘 사절단을 유럽으로 파견한 바 있었지만 이는 청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 사절단이 아닌 일회성의 해외 견문이나 유람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1868년으로 예정된 조약 개정의 만기가 다가오자 청 정부는 공식 사절단의 파견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혁흔은 이 일을 맡길 적임자를 고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비나 외교 의례 등의 문제로 인해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서양이 중국의 상황에 대하여 꿰뚫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이 외국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상태인 것은 사절 파견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필수적인 문제임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23]

---

22) 정동연, 『淸의 駐韓公館과 韓淸 近代外交 硏究』, 202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8.

이에 총리아문 내부의 논의를 거쳐 1868년 청 정부는 최초의 공식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으로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다. 사절단의 대표로는 주청 미국대사로서의 임기(1861-1867)를 마치고 귀국 예정이었던 벌링게임(Anson Burlingame, 중국명 蒲安臣, 1820-1870)을 辦理各國中外交涉事務使臣으로 임명하였다. 공친왕 혁흔은 공사 임기 내내 청 정부와 단 한 차례의 마찰이 없을 정도로 친중국 성향을 보인 벌링게임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으므로 만일 각국과의 사이에서 불공평한 일이 생기면 벌링게임이 전심전력으로 중국을 위해 일할 것으로 판단하였다.[24] 또한, 사절을 파견하고자 하여도 적임자가 없는 곤란한 상황인데다가 벌링게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서양 각국에서 예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그를 청 정부의 공식 사절단 대표로 임명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다.

중국인 대표 자격으로 함께 출사한 이들은 總署章京 滿人 지강과 漢人 손가곡이었다. 지강은 만주 鑲藍旗 출신 擧人으로 貴州 石阡府 지부를 지냈으며, 1864년 禮部員外郎候選知府의 신분으로 총리아문에 파견되었다. 지강이 청의 대표로 임명된 까닭은 아마도 그가 총리아문의 총판장경직을 맡았기 때문일 것이다. 총판장경은 아문의 문서를 주관하며 각급 공문의 초안을 총괄 감독하고, 왕과 대신의 지시에 따라 각 부의 업무를 분배하며, 왕·대신이 처리하는 교섭 사무, 즉 외국 공사의 접견을 수발하고 이를 기록하는 일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직책으로, 총리아문 내의 대신들과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대신들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25] 즉 총판장경은 문서에 능하고, 탁월한 실무 능력을 인정받은 이들로서 서양에 대한 이해도 비교적 높았으며 서양인과의 인맥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강은 사절단의 중국인 대표 자리를 맡게 되었다.

벌링게임 사절단은 1868년 2월 25일 상해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와 요코하마를 경유하고 태평양을 건너 3월 31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다. 미국으로 들어 온 후 지강은 화교를 직접 만나 그들의 상황을 전해 들었다.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된 1844년부터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 of 1882)이 제정되어 화공의 입국을 금지한 1882년까지 30여 년 동안 약 30만 명의 중국인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사실 미국의 서부 개발은 중국 노동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시기 중국인 이민자들은 캘리포니아에 집중되었다. 이들은 이주 초기에는 주로 금광

---

23) 「共親王等奏請派蒲安臣權充辦理中外交涉事務使臣摺(同治六年十一月初二日)」, 志剛, 『初使泰西記』, p.384.

24) 志剛, 『初使泰西記』, p.385. 劉華, 「評1868年中美『蒲安臣条约』——以華工出国及華僑保護問題爲視覺」, 『華僑華人歷史研究』, 2003, 第1期, p.49.

25) 李文杰, 「總理衙門總辦章京研究」, 『史林』, 2010-5, p.96.

에서, 점차 광산과 철도 건설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일하였다. 캘리포니아 지역 일간지 1852년 4월 10일 자에는 “길거리를 가득 메운 중국인들이 앞을 다투어 남부 광산으로 향한다. 매일 마차에 삽, 호미, 금쟁반, 돗자리, 스윙기와 식량을 가득 싣고 행운을 가져다 줄 광산으로 떠난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왔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26] 또, 1877년 2월 미국 국회 보고서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와 태평양 서부의 자원은 화공의 값싼 노동력에 의해 빠른 발전을 보였다. 물질의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태평양이 최대 수혜자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본가는 화공 덕분에 이익을 얻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중국인들이 입국한 결과로 태평양의 물질적 번영이 가능했다”고 밝힐 만큼 ‘성실하면서도 저임금’의 중국인 노동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았다.[27]

그러나 미국 노동시장에 백인 이주민들이 증가하여 중국 노동자들과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 이주민에 대한 혐오의 정서가 점차 확대되었다. 중국 사절단의 대표 자격으로서 지강은 미국 내 화교들이 처한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보았으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것과 영사관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1860년대 청은 근대적 외교 경험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강대국의 힘에 밀려 해외로 진출한 자국민을 보호하는 능력이 미약하였다.

지강은 해외에서의 일정과 견문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였고, 이 글은 1872년 고향 친구였던 恒矜과 그의 아들 宜垕의 편집과 정리를 거쳐『초사태서기』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1885년 상하이에서『小方壺齋叢鈔』라는 제목의 영인본으로 발간되었고, 1888년에는 유럽 각국의 군주를 접견하던 외교 의식과 그 세부적인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보충하여『初使泰西紀要』라는 제목으로 재발간되었다.

2)『初使泰西記』에 기록된 화교

지강의 견문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일본 화교에 대한 기록은 출발 후 동생에게 보낸 편지가 유일하다. 그는 자신이 탔던 미국 증기선 코스타리카 호에 寧波 출신 목공 십 수 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일본의 증기선을 제조하기 위해 모집한 중국인 노동자들이었다고 적었다. 배를 타고 일본 국경 지역의 5島門 海口로 들어갔는데 이곳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여기에서 무역에 종사하는 중국인들이 매우 많다고 하였다. 날이 저물어도 수많은 집들이 온통 환하게 불빛을 밝혀 해변을 비추는

26) 許国林,「近代美国華人移民的職業變化」,『許昌學院學報』, 제23권제1기, 2004, p.101.
27) 陳翰笙 主編,『華工出國史料匯編』, 中華書局, 1985, pp.15-16.

것이 번개처럼 보인다고도 적었다.[28]

요코하마에 도착한 후 갈아탄 미국 증기선 차이나 호에서 지강은 더 많은 중국인들을 만났다. 배에는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생계를 꾸리며 정착하려는 家人과 광동 유민이 남녀 8백 여명이나 타고 있었다.[29] 당시 해외 이주를 선택한 중국인들은 대부분 광동과 복건 출신이었는데, 광동 출신이 전체의 약 60%를, 복건 출신이 약 30% 전후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운동 등 지속된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 이민을 결정하였다. 잦은 가뭄과 흉작으로 곡물이 부족했고, 전쟁의 여파로 농지가 황폐해져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가난한 농민들이 기회를 찾아 낯선 땅으로 떠났다.

출발 후 한달 여만에 미국에 도착한 지강은 샌프란시스코를 미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소개하면서 이곳은 각국의 무역이 모여드는 곳으로, 상점과 숙소를 서양인에게 세를 얻어 정착한 광동 출신이 이미 십만 명을 넘어 외국인들이 '唐人街'라고 부를 정도라고 기록하였다.[30] 며칠 후 지강 일행은 (4월 초4일) 광동 岡州회관의 公司와 약속이 있었고, 사흘 후에는 紳商들과 만났는데, 이 모임에는 약 4 백여 명이 참석하였다. 미국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은 낯선 이국땅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조직을 구성하였는데 이를 회관이라 불렀다. 주로 동향 관계에 따라 구성되었던 이 조직은 이주민들의 초기 정착을 돕고 상호 협력하며,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할 시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등 결속력이 매우 강한 네트워크였다. 이들과의 만남에서 지강은 중국의 체면을 지키며 중국 역대 성현들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외국의 금령을 지키고 각자의 분수에 맞게 순리를 따르면 자연히 흥성할 것이라는 덕담을 하였다.[31] 지강은 이들을 '華商'이라고 칭하였으며, 이 만남에 대해 "6대 회관의 지배인 6명이 함께 와서 배알을 하였는데, 매우 공손했다. …… 대련과 족자를 써 달라고 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아서 이것으로 기나긴 낮을 보낼 수 있었던"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기록하였다. [32]

회관을 통해 전해 들은 샌프란시스코 내 중국인들의 사정에 대하여는 "샌프란시스코의 광산에서 일하는 약 6, 7만의 중국인들은 서양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두 면제받지만 오로지 중국 사람들만 인두세를 면제받지 못하여 2원씩 납부한다"는 사실과 중국인과 서양인 간에 소송이 벌어졌을 때 서양인이 증인을 서주지 않으면 중국인의 소송에 대해 심리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28) 志剛, 『初使泰西記』, pp.263-264.
29) 志剛, 『初使泰西記』, p.264.
30) 志剛, 『初使泰西記』, p.264.
31) 志剛, 『初使泰西記』, p.266.
32) 志剛, 『初使泰西記』, p.264.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 지강은 강한 분노를 느끼면서 이 모든 것은 확실히 불공정한 일이라고 기록하였다[33]

미국 내 중국인을 차별하는 법적 조치는 1850년 초부터 나타났다. 1852년 4월, 캘리포니아 주지사 존 비글러(John Bigler)는 동양계 이민자들의 유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채택하도록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제안하였다. 1854년에는 "흑인, 백인과 흑인의 혼혈, 인디언은 백인을 위해서 또는 반하여 증인이 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캘리포니아의 법 조항에 의거하여 중국인의 법정 증언이 금지되었다. 이는 백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중국인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무력하게 만드는 조치였다.[34] 1862년에는 반 쿨리법 (Anti Coolie Act)을 제정하여 중국인 광산 노동자에게 매달 2.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는 1860년 캘리포니아에서 고용된 중국인 남성의 70% 이상이 광부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중국인 노동자들과의 경쟁에서 백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중국인의 캘리포니아주 이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당시 중국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3-5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금의 과도한 액수도 문제였지만, 오로지 중국인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는 점에서 명백히 차별의 성격을 띤 법이었다.[35]

이 외에도 1870년 왜건이나 카트를 이용하는 미국인들과 달리 지게를 사용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지게 사용 금지 법령', 1873년 이른바 '세탁법'이라 하여 카트를 사용하여 세탁물을 운반하는 이들에게 2달러를 부과한 것과 달리 카트가 없는 중국인들에게 15달러의 세금을 부과한 법이 있었고, 1870년 모든 성인은 위생과 환기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에 거주해야 한다는 '위생 법령'에 따라 좁은 숙소에서 생활하던 중국인 노동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76년의 변발 금지 법령은 중국인들은 감옥에 들어오면 바로 변발을 잘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중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법령까지 동원하여 중국인을 차별하였고, 1882년에는 급기야 중국인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하고 이미 미국에 정착한 중국인의 경우 시민권 획득을 금지하는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이 제정되었다.[36] 지강이 이와 같은 구체적인 법령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는 알 수 없

33) 志剛,『初使泰西記』, p.265.

34) 김지원,「동양계 이민자에 대한 차별정책, 1850-1907 - 미국 서부의 중국과 일본 이민을 중심으로」,『인문과학연구논총』, 제33권 2호, 2012, pp.247-249.

35) 김경혜,「벌링게임 사절단이 체험한 미국 - 지강의 초사태서기를 중심으로」,『中國學報』, 제101집, 2022, p.503.

36) 1850년대부터 1882년 중국인 배척법이 제정될 때까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및 샌프란시스코에서 반포된 각종 중국인에 대한 차별의 성격을 지닌 법령에 대하여는 김지원,「동양계 이민자에 대한 차별정책, 1850-1907 - 미국 서부의 중국과 일본 이민을 중심으로」,『인문과학연구논총』, 제33권 2호, 2012, pp.239-262와 인터넷 자료 http://libraryweb.uchastings.edu/library/research/

지만, 미국 내 중국인들의 열악한 환경과 차별의 의미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강은 미국이 중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또 하나의 원인으로 종교를 꼽았다. 그는 미국인들이 자신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지 않는'이교도'에 대한 차별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지적하였다. 그 근거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중국인들이 현지인과의 사이에서 소송이 발생하면 차별을 당하고 굴욕을 겪는 경우가 많다. 중국인은 증인이 될 수 없고, 오직 미국인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인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교도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으니 중국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또 중국인 노동자가 납부하는 매년 2달러의 세금은 오직 중국인들에게서만 부과되는 것이다. 이 역시 중국인이 이교도이기 때문"[37]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중국인을 '아편에 중독된 비도덕적인 이교도'로 멸시하는 미국인들이야말로 기독교의 인류애로 자신들을 포장하지만, 사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처럼 표리부동한 미국의 기독교에 대하여 지강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계기가 있다. 그는 영국에 머물고 있었던 1868년 8월 江蘇省 揚州에서 발생한 교안의 처리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기독교에 대하여 매우 강한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기독교가 "명분은 사람들에게 선을 권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무리를 모아 송사를 벌이고, 빚을 떼먹고, 재산을 강탈하는 등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관청을 능멸하는" 악행을 일삼는다고 지적하면서 서양 선교사는 목숨을 담보로 중국으로부터 수십만의 배상을 얻어 내려 하고, 서양 국가는 선교사들이 농간을 부리도록 방관하고 있다고 하였다.[38]서양 선교사들은 조약에 기대어 중국의 법률과 풍습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하며 오만하게 행동하는데 서양 국가는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있으니 중국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39]이와 같은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은 미국 내 중국인에 대한 차별을 바라보는 지강의 시선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강의 『초사태서기』중에 화교 관련 기록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우선, 그는 미국 내 중국인들의 이주 과정과 경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860년대에도 여전히 사기, 유괴와 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나가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예처럼 학대받은 스페인과 페루의 중국 노동자들에 대하여 들은 바를 간략하게 언급하였을 뿐이었다.[40] 지강은 미국 내

---

special-collections/wong-kim-ark/laws3.htm을 참고하였다.

37) 志剛, 『初使泰西記』, p.275.

38) 志剛, 『初使泰西記』, p.310.

39) 志剛, 『初使泰西記』, p.309.

40) 志剛, 『初使泰西記』, p.267.

중국 이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를 선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중국인들이 현지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차별을 받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다.

1860년대는 해외 이주 중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초기 단계였다. 지강의 기록 역시 축적된 정확한 정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직접 경험과 개인적인 직관에 따른 것이다. 또, 주로 회관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 지강이 중국 이주민들의 개인적이거나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였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해외 이주민을 棄民으로 여기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전통적인 태도를 버리고 인식을 전환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는 우선 화교를 자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조약을 체결할 것과 영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지강은 당시 조약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공법'이 국가 간 교섭의 방식이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곧 서양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41] 서양이 때때로 그 내용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수단으로 조약을 악용하지만, 이미 세계 질서는 국제법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약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외국과의 모든 관계가 조약을 근거로 하는 시대이므로 미국 내 중국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차별 역시 조약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지강이 서양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얻게 된 것이었다.

지강은 영사 파견 및 영사관 설립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1860년대까지 청 정부는 해외로 이주한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재외 기관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의 중국인들은 각종 차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중국인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지강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수십 만의 중국인들이 분규를 일으킨다 해도 이를 통제할 사람이 없다. 이들을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모두 외국의 하층민이 되고 말 것"[42]이라고 염려하면서 미국 내 중국인들은 어떤 차별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전달할 공식적인 통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실 샌프란시스코의 중국인 문제는 미국 정부에서도 크게 우려하는 문제였다. 1865년 미국 국무장관 시워드(William Henry Seward)는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 특히 캘리포니아에 있는 다수의 중국인을 위해 반드시 공사가 파견되어 그들을 관리해야 할 것"[43]이라면서 청 정부에게 공사를 파견을 건의한 바 있었다. 국가

41) 김경혜, 「『初使泰西記』에 나타난 志剛의 대외인식」, 『中國學』, 제81집, 2022, p.438.
42) 志剛, 『初使泰西記』, pp.274-275.
43) 김남현, 「초기 중국이민의 교섭과 조약체결: 벌린게임 조약과 1880년 중미조약을 중심으로」,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제25집, 2011, p.127.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주민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이는 외교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들을 관리, 보호하기 위하여 조속히 영사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지강 역시 동의를 표하였다.

미국 내에 영사관 설립의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강의 인식은 청 정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례로 구미 지역보다 지리적으로 근접한 일본에 우선 영사를 파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던 이홍장은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중국인 차별과 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페루와 쿠바를 비롯하여 멀리 각 섬까지 영사를 파견하여 중국인들을 학대와 차별로부터 구제하고 보호한다면 중국인들이 조정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니 이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44]

4. 李圭의 『環遊地球新錄』에 나타난 화교

1) 李圭의 출사 배경

널리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규(1842-1902)는 1876년 개최된 미국 필라델피아 박람회에 중국 대표 자격으로 참가한 인물이다. 그는 江蘇省 南京 출신으로 윤택한 가정에서 출생하였지만, 태평천국의 혼란 속에서 가정이 몰락하였다. 1860년 태평천국이 江南大营을 공격하였을 때에 그의 어머니와 아내를 포함하여 가족 20여 명이 사망하였고, 자신도 포로가 되어 태평군의 "写字先生"노릇을 했다. 2년 후 상해로 피신하여 영국과 프랑스가 조직한 상승군에서 문서를 담당하는 일을 맡았고, 1865년부터는 浙海关에서 문서 담당 사무를 맡았다. 그는 해관에서의 시절을 "영민하지 못한 자신이 그저 10여 년 동안 문서를 맡았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하였다.[45] 이처럼 그가 중국 관료 계층을 대표할 정도의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박람회 업무와 관련된 상업적 지식을 겸비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는 박람회 참가단의 중국 대표가 되었던 것일까?

1873년 비엔나 박람회가 막을 내리기 전, 미국 정부는 청 정부에 1876년 필라델피아 박람회 참가를 요청하였다. 청 정부는 비엔나 박람회 때와 같은 방식으로 해관 총세무사 하트(Robert Hart 중국명 赫德, 1835-1911)에게 박람회 참가단 구성과 관

44) 李鴻章, 「請遣使赴秘魯片」, 『李鴻章全集』6, pp.342-343. 정동연의 논문에서 재인용, p.61.
45) 이규의 일생에 대하여는 鍾淑河, 『走向世界叢書』 중 『環遊地球新錄』부분에서 참고하였음. 李圭, 『環遊地球新錄』, pp.170-171, p.193.

련된 전권을 일임하였다. 서양 각국이 상업적 가치를 높이 판단하여 경쟁적으로 박람회에 참가하고 개최할 때 청 정부는 박람회를 그저 '신기한 것을 다투거나 자랑하는 무익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무지하였고, 박람회 업무를 맡길 마땅한 인물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박람회와 관련된 업무를 전적으로 해관이 주도하면서 하트는 막강한 힘을 휘둘렀다. 그는 烟台, 宁波, 汕头의 세무사에게 중국의 북, 중, 남부 3개 지역의 출품물을 모집하도록 하였고, 참가단 역시 해관의 외국인들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중국 대표단으로서의 모양새가 적절치 않았을 뿐 아니라 하트가 독단적으로 지나치게 권력을 휘두른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참가단의 구색을 맞출 중국인 대표가 필요했다. 이규의 상사였던 독일인 세무사 데트링 구스타프 폰(Detring, Gustav Von, 중국명 德璀琳, 1842-1913)이 이규를 추천하였고, 하트가 찬성하면서 그의 합류가 결정되었다.[46] 이규가 중국 대표로 발탁된 것은 그가 오랫동안 해관에서 일하면서 서양인과 교류한 경험이 있었고, 서양에 대하여 완고한 태도를 취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 등이 작용했을 것이다.[47] 하트는 이규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였는데 그것은 박람회 안팎의 사정과 견문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중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라는 것이었다.[48] '기록'을 주 업무로 하는 자리에는 오랫동안 문서를 담당했던 이규와 같은 인물이 가장 적임자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1876년 4월, 이규는 통역과 함께 상해를 출발, 일본을 경유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후, 기차를 타고 박람회 개최지인 필라델피아로 이동하였다. 박람회 참관 후에는 워싱턴, 뉴욕 등 도시를 방문하고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 런던, 파리, 리옹, 마르세이유를 견문한 후 다시 지중해와 홍해, 인도양을 건너 상해로 귀국하였다. 총 9개월에 걸친 여정이었다. 하트로부터 '기록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이규는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견문한 것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그는 책의 自序에서 "미국 각 도시와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을 둘러보고 상해로 귀국하는 지구 일주의 과정을 거쳤으며, 상해로 돌아온 후 견문한 내용 정치, 풍속 등 일체의 내용과 서양인과 나눈 대화에서 언급한 내용 들을 모두 상세하게 기록하였다고 적었다.[49]

---

46)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이규가 이홍장의 추천을 받아 중국 공상계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박람회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우선 이홍장은『환유지구신록』서문에서 이규가 동해관세무사 德璀琳 의 추천으로 박람회 대표단에 합류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당시에는 아직 공상계라고 부를 만한 직업 구분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이규는 해관 관원 출신으로서 상무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공상계를 대표할만한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孫建偉,「费城世博會, 李圭睁眼看世界」,『檔案春秋』, 2010, p.20.

47) 熊娉婷,「試析李圭的環球旅行」,『湖南省政法管理干部學院學報』, 제18권제2기, 2002, p.173.

48) 박람회 참가단의 구성인원과 하트가 이규 본인에게 부여한 임무에 대하여는『環遊地球新錄·自序』에 기록되어 있다. 李圭,『環遊地球新錄』, p.193.

49) 李圭,『環遊地球新錄』, p.194.

그는 또 출국하기 전 친분이 있던 『申报』의 주필에게 자신이 둘러보는 곳마다 일기 형식의 기록을 남겨서 보내주겠노라고 약속하였다. 그의 기록은 1876년 6월 7일부터 1877년 2월 6일까지 『신보』에 실렸으며, 연재 후에는 총리아문과 각지의 해관에서 출판되었다. 『신보』에는 이 책에 대한 광고도 실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파 해관의 文案 李小池(李圭, 字小池) 선생은 재작년에 파견을 명받고, 미국으로 건너가 박람회를 참관하였다. 상해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 대동양(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하였다. 다시 대서양을 건너 영국과 프랑스의 수도를 방문하고 인도양을 건너 상해로 귀국하였다. 이 여정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수륙 8만 2천여 리를 8개월에 걸쳐 왕복한 것이며 『环游地球新錄』 이름의 책을 써서 보내왔다. …… 총리아문과 북양대신에게 등사하여 제출하였고, 지금은 해관 조책처에서 인쇄하여 각지로 나누어 팔고 있다. …… 집을 나서지 않고도 바다 건너의 국사를 알고자 하는 이들은 마땅히 이 책을 사서 읽어야 한다."[50]

이 책은 공개 출판 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책의 서문을 지은 이홍장은 이규가 미국의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여 중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경유한 모든 지역과 여정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고 하였다면서 그의 견문록에는 "산물의 성쇠, 도리의 險易, 政敎의 得失 및 기기 제조의 정교함, 인심과 풍속의 서로 같음과 다름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 헛됨이 없으니 이는 어찌 한 사람만이 거울로 삼을 수 있겠는가?"라며 극찬하였다.[51] 그 외에도 곽숭도,왕도와 강유위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저명한 지식인층이 이 책에 대해 언급할 정도로 크게 유행하였다.

2) 『環遊地球新錄』에 기록된 화교

(1) 일본 화교에 대한 기록

기록에 따르면, 漢代부터 이미 중국과 일본 간에는 사신이 오갔고, 唐代에는 나가사키의 '唐館'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서로 통상하였다고 한다. 청말 함풍 이래로 주로 복건과 광동 출신들이 나가사키로 들어와서 무역에 종사하였으며, 일본에서 가장 무역에 번성한 곳은 요코하마와 고베, 나가사키였다.[52]1850년대 말 청·일 간의 항로가 열린 이후로 상해에서 나가사키 또는 요코하마로의 이동이 시작되었으

50) 赖某深, 「清末的几种環球考察記」, 『尋根』, 2019, p.27.
51) 李圭, 『環遊地球新錄』, p.192.
52) 조세현, 『근대 중국인의 해국탐색 - 청말 출사대신의 일기와 해양문명』, 소명출판, 2021, p.283.

며 1871년 청일수호조규 체결로 양국 간에 외교관계가 수립된 후에는 점차 더 많은 중국인이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이규는 1876년 4월 21일부터 5월까지 일본의 3대 차이나타운으로 알려진 나가사키, 고베, 요코하마를 방문하여 그 지역 화교들을 만났다. 1860년대 이후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의 견문록에는 거의 예외 없이 나가사키, 고베, 요코하마 등지의 화교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지만, 이규의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에 가서 현장을 본 첫 번째 청 관리가 남긴 기록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4월 20일 상해를 떠난 이규는 약 19시간 이상을 항해하여 4월 22일 일본의 첫 도시인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그는 광동 상인이 경영하는 잡화점 "泗合盛"를 방문하여 점주인 梁鋈川과 周昭亭으로부터 중국인들의 상황에 대하여 들었다. 공상업에 종사하는 在日 중국인 노동자는 광동 출신이 약 300여 명, 八闽 출신이 3,400인, 절강 출신이 100여 명이 있으며 廣肇會 1곳, 八浙會 1곳이 있다. 이들은 일본이 중국 본토에 비하여 생계를 도모하기 쉽다고 했지만, 언사를 살펴보니 일본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기록했다.[53]

梁鋈川의 안내로 萬壽山을 유람한 후 저녁에 돌아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규는 일본의 화교들이 차별받는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들었다. "日本 稅收에는 户稅와 人稅 두 종류가 있다. 일본인들은 호세로 매월 천보동전 2 枚 반을 납부하고, 인세로 남녀 천보전 8 매를, 16세 이하는 납부하지 않는다. 일본 내 중국인들은 商主者는 성년 남녀에게 매년 银元 二元을, 商伙者에게는 은전 半元을 징수하며 16세 미만에게는 그 절반을 징수한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구미인들에게는 이 세금을 면제해 주고, 서양 조계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는 戶稅를 면제해 준다"며 같은 이주민이지만 중국인과 서양인을 차별하는 것, 또 같은 중국 이주민이라 하여도 서양 조계에 거주하는 이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 등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중국인들이 소송을 하면 일본 관리가 처리하지만, 서양인의 경우에는 자국의 영사가 처리하는 것도 차별적이라고 적었다.[54] 그러나 이는 일본 내에 중국의 정부 기관이나 영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해외 중국인들이 세무상 차별대우를 받고, 사법적으로 본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나가사키를 떠나 19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움직여 고베에 도착한 날은 4월 25일이었다. 이규는 함께 배를 탔던 지인의 초대로 광동 상인 裕興泰號에 가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그곳에서 司號를 통해 "고베와 오사카의 인구는 약 6만여 명인데 그들 중 중국인이 7, 8백 명 정도라는 것과 중국인들이 세운 회관의 규모는 나

53) 李圭, 『環遊地球新錄』, p.318.
54) 李圭, 『環遊地球新錄』, pp.319-320.

가사키와 비슷하지만, 무역의 규모나 조계의 상황 등은 나가사키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55] 1867년 개항한 고베에는 1868년부터 외국인 거류지가 설정되어 외국 상인들이 머물 수 있었지만, 당시 청과 일본 간에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무 조약국의 국민'이었던 중국인들은 거류지 내에 살지 못하고 거류지 서쪽 인근 지역에 모여 살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南京町(난킨마치)"[56]의 원형이었다. 고베의 일본인들은 화교를 '난킨마치의 도박꾼'이라 칭하면서 이들을 '아동을 유괴하는' 공포스러운 존재로, 또는 '일본 중산층의 인정과 풍습을 해치는 도박꾼' 등으로 표현하면서 저급한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들을 차별하였다.[57] 이규의 글에 이와 같은 차별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고베를 떠나 요코하마에 도착한 날은 4월 29일, 이규는 작은 배를 타고 해안에 내려 東同泰號에 갔다. 저녁에 화상 梁沛霖이 찾아와서 "요코하마 상민은 대략 4만 명으로 화인이 1천 6백 명이고 통상 상황은 나가사키와 고베보다 좋지만, 상해에 비하면 열 중에 셋, 넷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십 家의 크고 작은 양행에는 다양한 화물을 산적해 놓았다. 수입은 洋貨가 많고, 수출은 동, 칠기, 차, 골동품 등"이라고 알려주었다. 일본이 아편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은 금연이 매우 엄격해서 아편을 피우는 자는 즉각 엄한 벌을 받으므로 일본인들은 감히 범법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 애석하게도 우리 중화는 어느 세월에 아편을 끊을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이외에도 "중화회관은 董事 6명과 司事 8명을 선출한다. 화인들의 세세한 문제는 이곳에서 처리하지만, 송사가 발생하면 일본 관리들이 주지한다. 人稅, 戶稅는 나가사키와 같다. …… 각국은 영사관을 두어 상주하도록 한다"고 기록하였다.[58]

일본 내 각 지역에서 중국인에 대한 배척과 차별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일본으로 이주하는 중국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일 양국 간에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그 수가 급증하여 청일전쟁 직전까지 요코하마의 중국인이 3,300여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대부분 광동 출신이었다.[59]

---

55) 李圭, 『環遊地球新錄』, p.320.

56) 요코하마와 나가사키의 차이나타운이 '쥬카가이(中華街)'로 불리는 것과 달리 고베의 차이나타운이 중국의 난징을 연상하게 하는 '난킨마치(南京町)'로 불리는 것은 명대 일본으로 수입된 중국 물품이 대부분 난징에서 유입되어 당시 일본에서는 중국산 물건을 '난징물품(南京物)'으로, 중국인을 '난징사람(南京人)'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고베 '난킨마치'의 유래이다. 김혜련, 「일본 화교·화인 민족 집거지의 형성과 화교 단체의 역할」, 『동북아문화연구』, 제51집, 2017, pp.38-39.

57) 陳來幸, 「中華會館的成立和神阪華僑社會」, 『華僑華人歷史研究』 1997, 제3기, p.45.

58) 李圭, 『環遊地球新錄』, p.322.

59) 羅晃潮, 「20世纪70年代前日本横滨華僑社會的廣東人」, 『岭南文史』, 2003, p.52.

(2) 미국 화교에 대한 기록

5월 초 이틀, 이규는 요코하마를 떠나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향했다. 그가 탄 '북경성'이라는 이름의 배는 총 길이가 42丈 6척, 넓이가 4장 6척, 무게가 5천 5백 톤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배의 위 객실에는 3명의 중국인이 있었고, 아래 객실에는 109명이 있었다.[60] 아래 객실의 중국인들은 홍콩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을 통해 이규는 올해 봄 샌프란시스코의 아일랜드인(이들은 이미 미국 국적을 취득한 자들로서 중국인들은 이들을 회당이라 부른다)들이 중국인이 자신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여기며 중국인들을 괴롭혀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는 중국인들의 수가 줄었다는 사정을 전해 들었다.[61] 배에서 만난 중국인들은 모두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등 전쟁과 내란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광동 지역의 빈곤층들이었다.

이규는 그들 중 미국에 고용되어 가는 이가 몇이나 되는지 물었다. 80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자 고용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미국으로 가려 하는지 다시 물었다. 미국에서는 생계를 도모하기 쉬워서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면 이번 항해에는 왜 이렇게 중국인의 수가 줄었는가를 묻자 미국에 있는 아일랜드인들이 중국인을 괴롭히는데 그 화를 예측할 수 없어서 감히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가는 이들은 굶주림에 시달려 어찌할 수 없이 미국행을 선택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들의 사정을 듣고 이규는 몹시 가엾게 여겼다.[62] 아마도 이규는 이 대화를 통해 해외로 떠나는 중국인들의 고단한 사정을 처음으로 자세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후 이규는 미국 내 중국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우선 "미국 내 중국인 남녀 총 16만 명 중 약 4 만여 명이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한다. 캘리포니아의 다른 도시에 10만여 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른 성(주)에 살고 있다. …… 중국 여성은 약 6천 명 정도 있는데 이들 중 양가집 여성은 열 중 하나, 둘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창기"라고 기록하였다.[63] 이규의 말처럼 1850~60년대 미국으로 온 중국 여성들 대다수가 창기였다. 통계에 따르면, 1860년 미국 내 중국 여성은 1, 784명이며 1870년에는 4, 566명이었는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창기업에 종사하였다. 1860년 북경조약 체결로 인해 가족과 함께라면 중국 여성의 출국 역시 합법이었지만, 18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홍콩을 거쳐 출국한 중국 여

60) 李圭,『環遊地球新錄』, p.322.
61) 李圭,『環遊地球新錄』, p.324.
62) 李圭,『環遊地球新錄』, p.325.
63) 李圭,『環遊地球新錄』, p.301.

성은 전체 출국자의 6~10%에 불과했다. 이는 중국 남성 노동자 대부분이 미혼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혼자라 하여도 여성이 바다를 건너는 것에 대해 편견이 심했고, 고향에 남아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내와 함께 출국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64]게다가 1875년부터는 중국 여성의 입국을 금지하는 페이지 법(Page Law)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중국인 이민 사회에 성비 불균형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규는 샌프란시스코의 중국인들이 대부분 광동 출신으로, "샌프란시스코에는 광동인들의 6대 회관이 있고, 각 회관은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이를 '董事'로 선출한다"고 하였다. 회관의 탄생 과정에 대하여는 "함풍 원년과 그 다음 해에 점차 많은 이들이 유입되면서 三邑, 陽和, 四邑(新會, 新寧, 恩平, 開平)의 3회관이 생겼다. 함풍 3년에는 四邑의 신영이 寧陽으로, 양화의 新安이 人和로 나뉘었다"고 하였다. 회관의 장정에 대하여는 "이주민이 항구에 도착하면 각 회관이 마중을 나가서 회관으로 데리고 온다. 회관이 요구하는 등록비는 없다. 그 사람이 돈을 벌어 귀국할 때 회관에 빚을 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회관이 배표를 대리 구매한 후 경비 양은 5원에서 10원까지 받는다. 노년에 가난하거나 병을 얻어 귀국할 때는 돈을 받지 않고 배표를 대신 내준다. 입회를 원하지 않는 이들도 있지만 매우 적다. 회원에게 걷은 회비는 방세, 봉급, 급료나 식량에 쓴다. 만일 여유가 있으면 자선사업을 위해 남겨둔다. 회원들 간에 사소한 분쟁이 발생하면 회관이 화해를 시킨다"고 하였다.[65] 널리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회관은 중국인들의 해외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각 지역에서 탄생하였다. 중국인들의 초기 정착을 도와주고, 화교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고향의 가족들과의 연락을 도와주는 일 등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회관을 중심으로 강한 결속력을 형성하였다.

이규는 미국 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하여도 기록하였다. "서양인 중에 아일랜드인들이 가장 교활하다. 매일 일당으로 번 돈은 술 마시는데 써버리고 소란을 일으키기를 즐긴다. 조직을 만들어 중국인 노동자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국인들은 이를 회당이라 부른다. 중국인을 업신여기며 괴롭히고 구타하며 모욕하는데 모두 이들 무리"라고 소개하였다.[66] 1846 - 50년 아일랜드에서는 '감자 대기근'으로 인해 전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100만 명 정도가 사망하였고, 빈곤과 기아를 견디지 못해 2백만 명 이상이 해외 이민을 선택했다. 이들 중 대다수가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중국인 노동자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규가 생각하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64) 천성림, 「근대 중국의 빈곤여성」, 『여성과 역사』, 제20집, 2014, p.44.
65) 李圭, 『環遊地球新錄』, pp.301-302.
66) 李圭, 『環遊地球新錄』, p.302.

아일랜드인들은 이미 미국 국적을 얻었다는 점이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한 아일랜드인들은 캘리포니아주의 관리도 될 수 있으니 중국인들에게는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 미국 정부는 외국인이 미국에 6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이 있었다. 이규는 타고난 천성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중국인들은 장기간 미국 거주하여도 미국 국적을 얻지 않는다[67]고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인들은 귀화의 자격을 얻을 수 없었다. 1870년 미국의 귀화법에 따라 '아프리카 태생과 아프리카계 후손인 외국인'에게만 귀화 자격을 부여하였으므로, '백인'과 '아프리카인' 중 그 어느 인종에도 속하지 않는 중국인은 미국인이 될 수 없었다.[68]

미국 내에 중국인을 혐오하는 정서가 확대되고, 중국인의 이주를 금지하는 각종의 규정들이 만들어지면서 매년 귀국하는 중국인들이 증가했다. 이규는 샌프란시스코의 중국인들이 마치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아슬아슬하며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샌프란시스코의 중국인들은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아슬아슬하며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싱가포르의 중국인은 본토인들에 의해 공격을 당하여 죽는다. 쿠바, 페루에서 학대받는 이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고, 그 잔악함은 차마 말할 수조차 없다. 일본에 있는 중국인들 역시 달갑지 않은 관리와 단속을 감내하고 있다. 그 외 호주, 말라카, 爪洼, 피낭섬에서 아직 다른 소식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반드시 중국인들이 안전하여 아무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만약 이 지역에 영사를 상주하도록 한다면 위로는 국체를 보존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69]

이와 같이 이규는 해외로 진출한 수십만의 중국인들이 온갖 차별과 학대를 당하는 상황을 청 정부에 알림으로써 영사의 파견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일임을 강조하였다.

5. 나오는 말

지금까지 지강과 이규의 견문록에 나타난 일본 및 미국의 화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두 인물은 각각 1860-70년대 해외 사절단과 박람회 참가단의 중국 대표로 출

---

67) 李圭,『環遊地球新錄』, pp.302-303.
68) 김용태,「미국의 아시아계 이민자의 인종 정체성과 백인성에 대한 인식의 변천, 1878-1944」,『江原史學』, 제29집, 2017, p.186.
69) 李圭,『環遊地球新錄』, p.303, p.306.

국하여 일본과 미국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을 만나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직접 살펴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해외에서 견문한 내용을 기록한 견문록을 남겼다.

이들의 견문록에 나타난 화교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지강은 1868년에, 이규는 1876년에 출국하였으므로 두 인물의 해외 경험에는 약 십여 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 이 십여 년은 청 정부 내에서 화교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중요한 시기였다. 청은 왕조 초기부터 강력하게 이민을 억제하였으므로 해외로 이주한 이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관리 감독의 대상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보호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었다. 아편전쟁 패배 이후 전쟁의 피해와 자연재해가 심각했던 남쪽 지역의 빈곤층을 중심으로 해외로 이들이 나타났고, 1860년 북경조약으로 인해 해외 이주가 합법화되면서 점차 더 많은 중국인이 출국하였다. 일본과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 남미 지역에까지 진출한 중국인들은 현지와는 다른 인종, 언어, 문화적 요소로 인해 냉대와 차별을 견뎌야 했다. 열악한 환경과 인종적 차별에 노출된 해외 중국인들의 사정은 1860년대 이후 지강과 이규처럼 출사한 관리들에 의해 알려졌다. 이들의 기록이 중국에 전달되면서 청 정부는 해외 이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조약을 통해 이들을 법적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영사를 파견하여 현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여 이들의 신분을 안전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근대적 외교 관계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지강보다 이규의 화교 관련 기록이 분량이 훨씬 많고, 내용도 더 구체적이며 비교적 정확하다. 지강은 경유지였던 일본 화교에 대하여는 매우 적은 내용만을 언급했지만, 이규는 나가사키, 고베, 요코하마와 오사카 등 여러 도시의 화교 현황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으로 남겼다. 또, 두 인물이 모두 언급한 중화회관에 대해서도 지강은 중화회관 인물들을 만나 연회를 베풀었던 내용을 기록하였지만, 이규는 각 회관의 형성과 역할, 조직 등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또 지강은 주로 중화회관에서 머물렀지만, 이규는 담배 마는 일, 작은 칼을 만드는 일과 세탁업 등 다양한 직군의 중국인들을 직접 만나 월급이나 생활 수준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필자는 이러한 차이가 그들이 파견된 서로 다른 목적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지강에게는 사절단의 대표로서 청 정부에게 유익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 서양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과 배울 수 있는 것, 즉 '양무'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나 정보를 소개하는 것이 그의 견문록의 목표였다. 따라서 그는 증기선으로 대표되는 서양의 과학 기술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였다. 또, 중국 대표로서 해

외 중국인들이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서양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현하였다. 한편 이규는 박람회 참가단의 중국 대표였지만, 실제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박람회 안팎의 상황과 견문한 것을 자세히 기록하여 중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 이었다. 그는 최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대화 등을 자제하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집중하였다. 해외 화교들이 처한 사정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즉, 두 인물이 사절단과 박람회 참가단의 중국 대표자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지강이 청 정부 관리로서의 성격이 더 강했던 반면 이규는 기록 전달자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졌다는 점이 그들이 남긴 견문록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志　剛,『初使泰西記』, 岳麓書社, 1985.

李　圭,『環遊地球新錄』, 岳麓書社, 1985.

陳翰笙 主編,『華工出國史料匯編』, 中華書局, 1985.

정동연,『淸의 駐韓公館과 韓淸 近代外交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조세현,『근대 중국인의 해국탐색 - 청말 출사대신의 일기와 해양문명』, 소명출판, 2021.

郭　惠,『蒲安臣條約與中美交涉華工事務硏究』, 西南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

叶　璐,『晩淸異域游記傳播硏究』, 遼寧大學博士學位論文, 2021.

<논문>

김경혜,「근대 중국인의 박람회 인식 - 王韜와 李圭의 경우」,『중국사연구』, 제111집, 2017.

_____,「『初使泰西記』에 나타난 志剛의 대외인식」,『中國學』, 제81집, 2022.

_____,「벌링게임 사절단이 체험한 미국 - 지강의 초사태서기를 중심으로」,『中國學報』, 제101집, 2022.

김남현,「중국이민의 미국이주: 원인과 제도」,『미국사 연구』, 제11집, 2000.

_____,「초기 중국이민의 교섭과 조약체결: 벌린게임 조약과 1880년 중미조약을 중심으로」,『세계역사와 문화연구』, 제25집, 2011.

김동하,「19세기 미국 내 중국 영사관과 중화회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중국지식네트워크』, 제17권, 2021.

김용태,「미국의 아시아계 이민자의 인종 정체성과 백인성에 대한 인식의 변천, 1878-1944」,『江原史學』, 제29집, 2017.

김지원,「동양계 이민자에 대한 차별정책, 1850-1907 - 미국 서부의 중국과 일본 이민을 중

심으로」,『인문과학연구논총』, 제33권 2호, 2012.
김혜련,「일본 화교·화인 민족집거지의 형성과 화교단체의 역할」,『동북아문화연구』, 제51집, 2017.
박경석,「근대 중국인의 해외여행과 내셔널리즘, 그리고 타자인식」,『東洋史學研究』, 제107집, 2008.
신명직,「식민형 '중간시민'에서 동화형 '유사시민'으로 - 화교화인의 변모와 '동아시아 시민'의 형성(1)」,『石堂論叢』, 제70집, 2018.
신효승,「19세기 미국 서부지역 아시안 이주와 反아시안 정서의 형성」,『사림』, 제67호, 2019.
오영인,「미국 1870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870)과 이민자들 - 19세기 중국인 쿨리(Coolie)를 중심으로」,『역사와 세계』, 제56집, 2019.
이병인,「近代 中國의 海外移民과 '故國'」,『東洋史學研究』, 제103집, 2008.
정영구,「19세기 후반 중국인 쿨리 해외이주의 개념과 방식,」『명청사연구』, 제48집, 2017.
_____,「中國人 海外移住, 陰地에서 陽地로: 第二次 中英戰爭期 外國招工章程의 性格」,『중국사연구』, 2020.
천성림,「근대 중국의 빈곤여성」,『여성과 역사』, 제20집, 2014.
潮龍起,「19 世纪候期美国三邑与四邑華僑的衝突和調控」,『廣東社會科學』, 2016.
陈来幸,「中華會館的成立和神阪華僑社會」,『華僑華人歷史研究』, 1997.
金晶,「晚清華僑政策轉變的階段性衝破及價値取向」,『巢湖學院學報』, 2011.
赖某深,「清末的几种環球考察記」,『寻根』, 2019.
李文杰,「總理衙門總辦章京研究」,『史林』, 2010.
柳　華,「評1868 年中美『蒲安臣条约』——以華工出国及華僑保護問題爲視覺」,『華僑華人歷史研究』, 2003.
羅晃潮,「20世纪70年代前日本横滨華僑社會的廣東人」,『岭南文史』, 2003.
沈燕清,「清代海外游历笔記中的華僑社會」,『八桂侨刊』, 2005.
孫建偉,「费城世博會, 李圭睁眼看世界」,『檔案春秋』, 2010.
王國强 ,「華僑史視野下的蒲安臣條約」,『歷史教學』, 2003.
熊娉婷,「試析李圭的环球旅行」,『湖南省政法管理干部學院學報』, 第18卷第2期, 2002.
許国林,「近代美国華人移民的職業變化」,『許昌學院學報』, 第23卷第1期, 2004.
叶小利,「晚清華僑政策轉變之影响——以華僑認同爲角度的解讀」,『北華大學學報』, 2014.
張　潁·王　進,「試析1868年蒲安臣條約與近代美國排華風潮之關係」,『成都教育學院學報』, 2005.

<기타자료>
김주아,「국내 학계의 '화교·화인' 관련 연구 성과 - 지식지형도와 시각화를 중심으로」,『2022년도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콜로퀴움』, 2022.
http://libraryweb.uchastings.edu/library/research/special-collections/wong-kim-ark/laws3.htm [2023.08.08.]
http://qwgzyj.gqb.gov.cn/qwhg/166/2043.shtml [2023.08.10.]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志剛, 李圭, 初使泰西記, 環遊地球新錄, 華僑, 海外見聞錄
	영문	Zhigang, Ligui, *Chinese envoy's first mission to the West*, *A New record of travelling around the earth*, Overseas Chinese, Foreign traveling notes

Chinese Migrants Recorded in Foreign Traveling Notes
: in the Case of Zhigang and Ligui

Kim Kyeong-Hye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overseas Chinese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hich appeared in Zhigang and Ligui's traveling notes. As Chinese immigration became legal from 1860, the number of Chinese entering overseas increased. Officials dispatched abroad conveyed the situation of discrimination and abuse experienced by Chinese migrants to the Qing government, which discussed the dispatch of overseas consuls and the establishment of overseas legation in earnest.

Zigang published a book called "*Chinese envoy's first mission to the West*" about his experie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s a Chinese representative of the Burling Games mission in1868. Li gui published "*A New Record of Travelling Around the Earth*" based on his experience as a representative of China at the 1878 Philadelphia Fair. They suggested setting up diplomatic and counsular mission.

Records of the difficult situation of overseas Chinese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at they witnessed became important data for the Qing government's policy to protect overseas Chinese.

저 자	김경혜 / 金慶惠 / Kim Kyeong-Hye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08.10.	심 사 일	2023.09.04.	게재확정일	2023.09.06.